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견주관절

논문제목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진단된 환자의 경과 관찰 연구 (수술한 환자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의 비교)

영문제목 **Follow-up study for patients diagnosed as full-thickness rotator cuff tear (Comparison of those who underwent and refused surgery)**

발표자 **고경환** 책임저자 유재철

저자 고경환, 유재철

기관명 서울의료원, 삼성서울병원

서론 :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에서 봉합이 가능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은 일반적으로 수술적 봉합을 권유한다.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 환자들을 추시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.

재료 및 방법 :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에서 봉합이 가능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은 일반적으로 수술적 봉합을 권유한다.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 환자들을 추시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.

결과 : 평균 연령은 64였으며, 남자 75명과 여자 95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. 평균 추시 기간은 53.6 개월이었다. 수술 권유 시 총 114(66.7%)명이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며, 57(33.3%)명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. 이 57명 중에 17명은 추후 수술을 시행 받았다. 전화 인터뷰 시점까지 수술을 받지 않은 40명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주요한 세가지 이유는 증상의 완화 및 미미한 증상 (22명(55%)), 경제적 사정 (5명(13%)), 그리고 마지막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(4명(10%))이었다. 임상점수는 진단 당시에는 수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유의하게 더 낮았다. 그러나 마지막 추시 결과 때의 임상적 결과는 두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.($p=0.342$, 0.615 , and 0.120 for PVAS, SST score, and ASES score, respectively)

결론 : 회전근개 전층 파열 환자의 23.5%는 수술을 거부하였으며,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단 초기에 통증과 장애가 더 많았다. 하지만, 평균 53.6개월 경과 후 양 군간의 임상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.

acknowledgment :

회전근개 전층 파열, 임상경과
